

가례시 절차에 따르는 조선후기의 왕실여성 복식연구

김 소 현

배화여자대학 전통의상과 교수

A Study of the Royal Lady's Dress in Lat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King's Wedding Process

Soh-Hyeon Kim

Professo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Baewha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08. 12. 23, 심사(수정)일: 2009. 3. 10, 게재확정일: 2009. 3. 15)

ABSTRACT

This study is made on the royal lady's dress in lat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King Heon-jong and Lady Kyung-bin's Wedding Diary in the year of Jung-mi(1847) and summarised as follows:

Girls' full dress was a set of a red skirt, a violet under jacket, and a light yellow jacket and a green Gyeon-ma-gi(a kind of top jacket) with her hair Saeng-meo-ri hanging Do-tu-rak-daeng-gi(a kind of hair ribbon). At the big ceremony, girls wore a green Dang-ui instead of Gyeon-ma-gi. A girl picked up as a royal concubine wore a green Won-sam, which was decorated with gilt letters meaning longevity, patched emblems of gilt letter meaning longevity on the breast and on the back, belted with Bong-dae(a red sash with gilt phoenixes), like a princess's full dress.

At the Kyung-bin's installation of Crown Princess and her first greeting ceremony with royal elders, she wore a green Won-sam as a formal dress, which had an embroidered emblem of phoenix, the belt with crystal ornaments, Pae-ok(佩玉), Kyu(圭) of blue jade, Shou(綬) with an phoenix. At a Dong-wrae-yun(drinking ceremony after bride and bridegroom's bowing to each other), she wore the embroidered red Jang-sam as a formal dress. Kyung-bin wore a purple Won-sam with Bong-dae as a full dress for a royal feast. According to the occasions, the same dress was differentiated with ornaments and colors.

Ji-keum-bal was an attire for ordinary ceremony. The attire was equipped with a woven gold green Dang-ui with an emblem of phoenix, a blue gilt underskirt and a red gilt overskirt. No-ui was worn as outdoor clothes. Jang-sam was worn by various classes, so it was differentiated with materials and names according to her class.

Key words: late joseon dynasty(조선 후기), royal wedding ceremony(가례), royal ladies(왕실여인), formal dress(명복), full dress(예복)

I. 서론

조선은 신분에 따라 착용할 수 있는 복식이 법으로 규정된 철저한 신분사회였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복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왕비, 세자빈, 대비 등 왕실의 적통을 잇는 여인들이 입는 최고 예복인 적의 외에는 의복의 종류별 착용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헌에 여인들이 착용하는 복식을 명복(命服), 예복(禮服), 성복(盛服) 등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여성예복은 노의, 장삼, 활의, 원삼, 당의, 견마기 등으로 다양하지만 국말에는 원삼과 당의로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의복에 따르는 복식의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종과 후궁 경빈 김씨의 가례에 대한 기록인 『당미가례시일기』는 가례의 절차에 따르는 각종 복식의 착용사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당미가례시일기』는 한글로 기록한 의례라고도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정형화된 의례의 구성 형식을 탈피하여 의례의 실행에 대하여 기록했으므로 의례에서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 있고, 한글자료이지만 발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격식과 가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문본 『당미가례시일기』라고 할 수 있는 규장각 소장 『헌종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憲宗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는 장서각 소장의 『당미가례시일기』와 상호보완되는 자료이며, 의례의 형식으로 기록된 장서각 소장의 『경빈가례등록(慶嬪嘉禮禮錄)』과 『경빈가례시절차(慶嬪嘉禮時節次)』 등이 있다.

이에 『당미가례시일기』를 기본자료로 하여 왕실 여성의 각종 예복 특성과 착용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왕실여성의 복식의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당시의 왕실 의생활 풍속을 이해하고 복식고증에 참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현종은 재위 중에 세 차례의 가례를 올렸다. 1837년(憲宗 3) 2월에 행한 효현왕후(孝顯王后) 김씨(1828~1843)와의 가례, 1844년(현종 10)에 거행한 계비(繼妃) 효정왕후(孝定王后) 홍씨(1831~1903)와의 가례, 1847년(현종 13)에 치른 후궁 경빈 김씨와의 가

례가 있다. 경빈 김씨는 낙선재의 주인공으로도 친숙한 역사적 인물이며 『순화궁첩초(順和宮帖草)』로 불리는 「사절복색자장요람(四節服色資粧要覽)」과 「국기복식소선(國忌服飾素膳)」을 남겨서 왕실복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를 전하고 있다. 정미가례의 주인공 경빈김씨는 주부(主簿) 김재청(金在淸)의 딸로서 8월 4일 초간택, 9월3일 재간택, 10월 18일 삼간택, 10월 19일 책빈, 10월 20일 납폐, 10월 21일에 가례를 치르고 11월 17일(혹은 26일)¹⁾에 관례를 치렀다. 반가의 규수에서 빈궁으로 신분이 변하면서 가례의 절차에 따라 착용하게 되는 여성 복식을 사례별로 나누어 고찰하고, 착용 방식, 복식의 특징 등을 밝히고자 한다.

영조대에 『오례의』를 재정비한 『국조속오례의』와 그것을 보충한 『국조속오례의보』, 가례에 대한 규정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국혼정례』, 『국혼정례』를 더욱 상세하게 보완한 『상방정례』를 바탕으로 『당미가례시일기』의 복식을 검토하고, 경빈의 가례를 기록한 『경빈가례등록』,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각종 가례도감의례, 『임오가례시일기』, 「사절복색자장요람」, 궁중발기 등을 참고하여 왕실의 여성복식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예복의 구체적인 착용사례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처녀예복

가례는 간택을 위하여 민간의 혼사를 금하고 처녀단자를 걷어 들이는 절차로부터 시작되었다. 단자의 첫 단에는 출신지를 쓰는데 서울 거주자는 '모부모방(某部某坊)', 지방 거주자는 '모도모읍(某道某邑)'으로 기록했다. 둘째 단 첫줄에는 처자의 성씨와 생년월일시, 본을 쓰고, 다음 줄에는 사조(四祖)를 부(父), 조(祖), 증조(曾祖), 외조(外祖)의 순서로 쓰며, 셋째 단에는 당해의 대연호, 월, 일을 쓰고 그 아래에 가장의 직명과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²⁾ 정한 기한에 처녀단자를 거두어서 3차에 걸친 간택의 절차를 밟아 당사자를 가렸다. <그림 1>은 고종 18년(1881) 왕세자(순종)의 가례를 위하여 거두어 들인 처녀단자의 하나이다. 경우에 따라서 간택하는 인원수에 차이가 있지만 정미가례에는 32명이

초간택에 참여하고, 재간택에는 5명, 삼간택에 3명을 들여서 1명을 선출했다.³⁾



<그림 1> 순종후간택시 단자(일부)

삼간택을 통하여 간택이 된 신부는 자기 집이 아닌 별궁으로 가서 궁중법도를 익히며 가례를 준비했다. 별궁은 왕실혼례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마련한 신부의 임시 거처로서 가례를 치르는 동안 신부의 사가(私家)의 역할을 하였다.

<표 1> 재간택 처녀 의차

분류	소재	비고
상의	초록운문사 견마기츠	일작츠 회장 구
	송화식설사 저고리츠	
	보라화방듀 저고리츠	일작츠 회장 구
	송화식 설한단 저고리츠	
속옷	다홍화사 치마차	
	너듀 일필 빅세목 일필	

초간택과 재간택에 임하는 처녀는 <표 1>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홍치마에 보라색 속저고리, 송화색(엷은 노랑색) 저고리, 초록색 견마기를 입었다. 머리모양은 생머리(絲陽髻(사양계))에 도투락땀기를 늘였다. 도투락땀기는 신부의 예장용 땀기로 알려져 있으나 초례청에 나오는 신부는 부인의 예장이 아닌 처녀의 예장을 갖추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귀한 신분의 처녀는 머리를

땀고 그 끝에 금화를 그린 두 갈래 땀기를 다는데 그 땀기는 도투락땀기라고 기록하고 있으며⁵⁾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속화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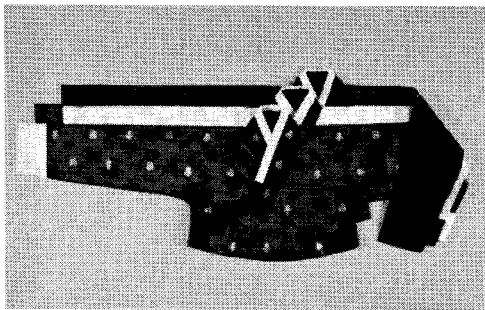
<그림 2> 회혼례첩 중 일부(출처: 국립민속박물관편, 2006, 수복, p. 148)

사도세자빈 혜경궁 홍씨가 자신의 재간 날을 서술하면서 “날…좀처럼 둘러보내지 않으시고 경춘전이라는 집에 오래 머무르매 점심을 보내시고…나인이 옷을 벗겨서 치수를 재려고 하였으며 내가 벗으려고 하지 않으니 그 나인이 달래며 억지로 벗겨서 척수를 재었고”라 하였다. 『덩미가례시일기』에는 간택에 동원되는 내인 중 초차담(初茶談) 진지 드리는 내인과 상 드리는 내인이 포함되어 있고, 발기⁶⁾에는 상의 매뉴가 소상히 기록되어있어서 간택에 임한 처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간택일의 의례적인 풍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⁷⁾에서 보듯이 재간택에서 선발되면 왕실에서는 삼간택에 입을 의복을 내려 보냈다. 재간 날 궁에서 치수를 재어 만든 옷을 보내오는 것이다. ‘삼간 때는 최 상궁이 또 우리 집에 나오고 색장으로는 문가의 대복이라는 나인이 나왔는데 정성왕후께서 만 들어서 내리신 초록도류문단의 당저고리, 엷은 노란빛 포도문단 저고리, 보랏빛 도류문단 저고리 한짝, 진홍빛 오호포 문단 치마와 모시 적삼을 갖다 주더라…궁중에서 삼간에 임하려고 내려주신 의복으로 갈아입고…’⁸⁾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간에 임하는 처자는 보라빛 속저고리, 연노랑색 저고리, 초록빛 당의, 진홍치마를 차려 입었다. 당의, 저고리, 속저고리가

〈표 2〉 삼간택 먹으로 보내는 의복

분류	소재	비고
머리장식	옥관을 갖춘 족두리	金彩文匣入 紫的繡紬襪
	자적사 금사양당기	
	진주장 옥반자 일	
	증석옹황 일	
노리개	산호가치	일출
	밀화가치	
	공작석가치	
반지	진주장도금지환	
상의	초록영조 당의복	일작
	송화식노기주 의복	
	분홍수화주 의복	
하의	다홍생숙초 겹치마 일	眞漆兩入
속옷	백저포 한삼 일	
	백세저포 자근치마 일	
	백화방주 잔누비 너른바지 일	
	백정주 누비바지 일	
	백반주 누비대자 일	
신발	자적단화 혜 일부(一部)	



〈그림 3〉 저고리 일작 - 아래로부터 보라 속저고리, 송화색저고리, 자적견마기

짜을 이루어 저고리 한 짝이라고 일컫고 있으며 『당미가례시일기』에도 초록당의·송화색 저고리·분홍저고리를 일작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당미가례시삼간택의대발기』에는 송화색소고의와 분홍소고의를 짝으로 하여서 이작, 삼작, 오작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⁹⁾ 이는 두 세트, 세 세트, 다섯 세트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리개 재료는 산호 가지·밀화가치·공작석 가지를 일출로 표기하고 있으나 「사절복색자장요람」의 탄일정조문안복식에는 세줄노리개로 적고 있어서 셋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세트로서의 개념과 구성요소 셋을 드러나게 표현하는 방식에 혼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속저고리, 저고

리, 걸저고리를 가리켜 저고리 삼작이라고 일컫는 것도 그러한 혼동 속에서 생겨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경빈은 삼간을 위해 궁에서 보내온 복식으로 흰바지, 흰 너른바지, 흰 작은치마, 다홍 겹치마 순으로 하의를 입고, 상의로 흰 한삼, 분홍 저고리, 송화색저고리, 초록당의 순으로 입었으며 새앙머리에 자적사(紫的絲) 금(金)사양 땡기를 늘이고 족두리를 쓰고, 산호가치·밀화가치·공작석가치로 만든 노리개를 차고 지환을 끼고 운혜를 신어서 예장을 마무리했다. 이것은 반가의 처녀가 갖추는 예장이라고 하겠다.

『한중록』에 의하면 삼간택에서 세자빈으로 뽑힌 홍씨는 세수를 한 후 원삼으로 갈아입고 영조, 인원왕후, 정성왕후에게 인사를 올린 후 별궁으로 향했다. 비빈으로 간택이 되면 초록 금수복자(金壽福字) 원삼에 부금(付金)한 수자(繡字)¹⁰⁾ 흥배를 단 옷을 입고 별궁으로 가게 된다. 비빈으로 간택되기는 했지만 아직 채빈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주,옹주가 다는 수자(壽字) 흥배를 단 것으로 판단된다. 봉대를 하고, 원삼 받침옷으로 금수복자 당의와 저고리, 속저고리, 남색의 부금 전자(篆字) 스란 옷치마와 다홍의 부금 전자스란겹치마를 갖추어 입고 가라머리를 하였다.¹¹⁾

삼간택에 임하는 처녀는 반가의 예장을 하고, 최종

간택된 처녀는 왕실 처녀의 예장을 함으로써 신분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처녀의 머리모양에는 남자쌍계(娘子雙髻)와 사양계(絲陽髻)가 있는데¹²⁾ 가라머리는 남자쌍계(娘子雙髻)에 해당하는 머리로 파악된다. 어린아이의 머리를 두 가랑지게 뿔아 늘인 것을 가랑머리¹³⁾라고 하듯이 가라머리란 두 가닥 머리이다. 『임오가례일기』에는 가라머리를 가채, 가라치라고 하였고, 둘이 한쌍을 이루는 것을 가리치라고 기재하여서 머리를 풍성하게 하기위하여 가채를 더한 두가닥 머리임을 알 수 있다. 가라머리에 자적(紫的)주련문사(珠聯紋絲)금면사보를 드리우고 덩에 올랐다. 별궁으로 가서 동일한 차림으로 내외빈의 인사를 받았으며, 삼간택 다음날 책빈할 때는 수식에 직금원삼, 수정대, 패옥, 청옥규를 갖추었다. 수정대는 세손빈의 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빈이라는 동일한 호칭을 갖더라도 세자빈 보다 경빈의 서열이 낮음을 보여준다. 원삼에는 가슴·등·어깨에 봉(鳳)흉배를 달고, 봉(鳳)후수를 하여 경빈의 신분에 맞는 명복을 갖추었다.

Ⅲ. 가례의 절차에 따른 신부 예복

가례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빈(冊嬪), 친영(親迎)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친영은 정혼한 남녀를 부부로 맺어주는 예로서 가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이다. 친영의 세부절차에는 친영의(親迎儀), 동퇴연의(同牢宴儀), 조현례의(朝見禮儀)가 있다. 세자의 경우에는 아버지인 왕이 배필을 맞이하는 아들에게 권면하는 임헌초계의(臨軒醮戒儀)가 추가된다. 왕은 세자가 세자빈을 맞으러 가기 전에 세자에게 술을 내리고 이르기를 “가서 너의 배필을 맞아들여 우리 종사를 계승하고 엄히 거느리도록 하라”고 경계한다. 신랑과 신부에게 술을 먹이는 것을 초(醮)라고 하므로 초례라고도 한다.

1. 친영의(親迎儀)

친영의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기러기를 드리는 전안례를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유교식 혼인의례이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혼인 풍속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것이고¹⁴⁾, 사위가 처가에 머물기 때문에 취처(娶妻)라고 하지 않고 장가든다[入丈]고¹⁵⁾ 했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는 과거의 혼인 풍속을 바꾸어 여자를 남자 집으로 데려오는 친영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고 전통적인 입장(入丈)풍속과 친영의식이 섞인 반친영을 하게 되었다. 신부 집에 초례청을 차리고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卺禮)를 치른 후에 신랑 집으로 가서[우귀 또는 친행(親行)] 현구고례(見舅姑禮) 즉 폐백을 올렸다. 혼인예식의 반은 색시 집에서 치르고, 반은 신랑 집에서 치르는 이중구조를 지녔던 것이다. 오직 왕실에서만 온전한 친영례를 치렀다.

신부의 아버지는 왕실로 시집가는 딸에게 “경계하고 공경하여 밤낮으로 어김이 없게 하라”고 이르고, 신부의 어머니는 “힘쓰고 공경하여 밤낮으로 어김이 없게 하라”고 경계하였다. 조선전기의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의(五禮儀)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왕의 경우, 사자(使者)를 보내어 신부를 맞아오므로 친영이라 하지 않고 봉영(奉迎)이라고 하였으나 조선후기의 역대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 의하면 면복을 갖춘 왕이 별궁으로 거동하여 신부를 맞아오는 친영의를 거행하였다. 왕비는 적의를 갖추고 수식을 엮었다. 세자빈의 친영의에 왕세자는 면복, 빈은 명복(命服)에 수식(首飾)을 갖추고, 주부(主婦)는 예의(禮衣)를 갖추었다. 세자빈의 명복은 아청색 적의로 판단된다.

『한중록』에는 “초례(醮禮)하고 부모께 또 혼계를 받았는데, 부친은 다홍 공복을 입고 복두를 쓰고, 모친은 원삼을 입고 큰머리를 엮었으며 일가친척이 모두 이별하려고 모였고 궁내 사람이 많이 나왔더라... 초례 후에 궁중에 들어와서 대례를 지내고...” 대례란 친영을 마치고 입궐하여 동퇴연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입궐하는 장면은 가례도감의궤에 반차도로 상세하고도 화려하게 그려져 있으며 수많은 수행원이 따랐다. 경빈 김씨의 경우에는 친영의가 없고 경빈이 입궐한 후 왕을 뵈는 빈조현대전의(嬪朝見大殿儀)로 친영의를 대신하였다. 정비(正妃)가 아니기 때문에 예식에 차이가 있었다.

왕비나 세자빈이 동퇴연을 치르기 위하여 입궐할

때 연에 오르면 경의(景衣)를 덧입혔는데 경의 제도는 명의(明衣)를 덧입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길은 갈 때 먼지를 막아 옷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었다.¹⁶⁾ 경빈은 다래를 엮은 가라머리에 노의를 착용했다.¹⁷⁾ 역대 가례도감의궤에는 왕비나 세자빈의 의대에 노의가 포함되어있지만 착용사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직 『당미가례시일귀』를 통하여 노의의 착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경빈가례등록』에는 별궁을 나와 입궐할 때 노의를 입은 차림을 명복(命服)이 아닌 명복(命服)으로 기록하고 있다. 경빈이 별궁을 나와 입궐할 때 노의를 입은 것은 가례의 여러 절차 중 집박, 즉 외출복의 용도로 착용한 것이어서 조선 초기 실록에 나타난 노의의 용례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동뢰연의(同牢宴儀)

동뢰연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교배례와 술잔을 나누는 합근례로 이루어진다. 동뢰연을 치르기 전에 왕비는 대차에 들어가 엄숙히 정제한다. 머리를 매만지는 것을 강조하는 상황으로 불 때 왕비나 세자빈도 가라머리에 노의를 입고 궁으로 들어와 동뢰연 전에 수식으로 머리모양을 바꾸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도 가져보지만 분명한 기록이 없으므로 아쉬울 따름이다.

동뢰연에 왕은 면복, 왕비는 적의를 입으며, 의례를 마친 후 왕은 면복을 벗고 상복을 입으며, 왕비는 적의를 벗는다. 세자빈의 동뢰연에 세자는 조복을 입고, 빈은 명복을 입으며, 예를 마친 후에는 조복을 벗고 상복을 입으며, 빈은 명복을 벗는다. 경빈의 동뢰연에 왕은 원유관·강사포를 입고, 경빈은 수식(首飾)을 하고 명복(命服)으로 직금 홍장삼, 패옥, 수정대, 청옥규를 갖추었다. 왕의 가례이지만 신부의 위계에 맞추어 왕이 조복을 착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자빈이 동뢰연에 착용한 명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세자가 조복을 입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미가례시일귀』에서 보는 바 홍배 겹장삼에 수식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에 홍장삼이 포함되어있으므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빈의 가례를 위하여 준비한 의복의 목록은 <표 3>¹⁸⁾과 같다.

경빈과 동뢰연을 치른 현종은 원유관 강사포를 벗고, 갓[두면(頭冕)]에 도포(道袍)를 입었으며 경빈은 홍장삼을 벗은 후 직금불(織金黻)을 입고 내빈의 인사를 받았다. 가례를 위하여 준비한 의복 품목으로 볼 때 직금불은 초록봉직금당의에 다홍갑사로 안을 받치고, 송화색수한단저고리, 분홍장원주저고리에 수천만세 또는 구봉스란을 갖춘 남옷치마, 수천만세스란을 갖춘 다홍완자치마일 가능성이 높다. ‘불’은 ‘옷차림’이라는 뜻으로 ‘불’은 ‘벌’로 음운이 바뀌어 한벌·두벌과 같이 단위로만 쓰이게 되었다.¹⁹⁾

내빈의 인사를 받은 후 본궁인 유덕당으로 가서 대왕대비가 내리는 야참 상을 받았는데 왕은 갓[두면]에 창의(釐衣)를 입고 빈(嬪)은 사양머리에 자적 금수복자 견마기, 송화색 장원주 저고리, 분홍화사주 저고리, 구봉스란을 갖춘 남대란치마를 입었다. 가례를 위하여 준비한 왕의 의대에 남아랑단 도포와 남수화두 창의가 한쌍을 이루는 것을 불 때 야참상을 받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도포의 받침옷인 창의로 간소한 차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남무문노기주 창의 밑에는 일상복인 백서양목 니의, 백정주바지를 입고 백서양목 행전을 쳤으며, 백서양목 한삼, 백정주 한삼에 보라수화주 동의대, 옥색왜주 긴의대를 갖추었다. 대비가 내는 이일, 삼일 야참상을 받을 때 경빈은 초록 금수복자 견마기, 다홍 대란치마를 갖추었다. 진주낭자는 장복(長服)과 직금발에 모두 찼다.²⁰⁾ 장복(章服)이 아닌 장복(長服)으로 기록한 것은 길이가 긴 옷치마를 갖춘 차림새가 곧중한 의례의 차림새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옷치마는 장치마로도 기록된다.

왕의 의대에 남한단으로 안을 댄 다홍한단 용포가 있지만 착용사례는 기재되어있지 않다. 경빈과의 가례절차 중에는 곤룡포를 입지 않았지만 다양한 의례에 착용했을 것이다.

3. 조현례의(朝見禮儀) 및 문안 복색

동뢰연 다음날 신부가 부왕과 모비 등 왕실 어른을 뵈는 예식을 조현례라고 한다. 민간에서의 폐백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경빈은 왕의 배필이므로 조현례를 올릴 부왕은 없었고, 중전인 효정왕후 홍씨(현종

<표 3> 경빈의 가례에 마련한 의복

가례시 의복		동조(東朝: 대비)에서 보낸 의복			
분류	물품	분류	물품		
예복	수정띠(水晶帶) 청옥구(靑玉圭)	예복	금치(金體) 봉(鳳)홍배 견화(肩花) 구(具)		
	초록(草綠)직금(織金)원삼(元衫) -다홍(多紅)한단(漢緞)넉작(內作)		금치(金體) 봉(鳳)홍배 견화(肩花) 구(具)		
	금치(金體) 봉(鳳)홍배 견화(肩花) 구(具)				
	봉금치(鳳金體) 후수(後綬) -패옥(佩玉) 금환(金環) 구		금치(金體) 봉(鳳)홍배 견화(肩花) 구(具)		
	폐슬(蔽膝) 은증(銀簪) 구				
	다홍(多紅) 완즈당춘단(宛子長春緞) 금원문(金圓紋) 노의(鷲衣)		금치(金體) 봉(鳳)홍배 견화(肩花) 구(具)		
	직금(織金) 홍당삼(紅長衫) 뉴경(柳靑) 당춘단(長春緞) 넉작(內作)				
	초록(草綠) 봉직금(鳳織金) 장의복(長衣服) 다홍(多紅) 갑사(甲紗) 넉작(內作) 송화식(松花色) 수한단(繡漢緞) 의복 분홍(粉紅) 장원두(長元袖) 의복		예복	초록(草綠)주련문사(珠聯紋紗)직금(織金) 당저고리-다홍(多紅)린접문사(鱗蝶紋絲)넉작(內作) 송화식(松花色) 화문사(花紋紗) 저고리 분홍(粉紅) 화문사(花紋紗) 저고리	일작
	즈덕(紫的)금수복존(金壽福尊)견마기[肩莫只] 송화식 장원두 의복 분홍 화스듀(花紗袖) 의복		일작	초록 도류단(桃榴緞) 당저고리 송화식 능(綾) 저고리 보라 수화듀(水禾袖) 저고리	일작
	초록 금수복존 견마기 송화식 화문(花紋通海袖) 의복 보라 장원두 의복		일작	송화식 장춘단(長春緞) 저고리 분홍 화스듀(花紗袖) 저고리	일작
송화식 도류단(桃榴緞) 의복 옥식(玉色) 도류단 의복 분홍 도류단 의복	일작	송화식 왜단(倭緞) 저고리 보라 수화듀(水禾袖) 저고리	일작		
송화식 당춘단 의복 분홍 도류녕초단(桃榴英納緞) 의복	일작	송화식 아랑단(鴉浪緞) 저고리 보라 문듀(紋袖) 저고리	일작		
두록(豆綠) 화스듀의복 분홍 수화듀 의복	일작	송화식 설한단(雪漢緞) 저고리 보라 수화듀(水禾袖) 저고리	일작		
송화식 수화듀) 누비 의복	일	송화식 공단(貢緞) 잔누비 저고리 분홍 수화듀(花紗袖) 잔누비 저고리	일작		
두록 수화듀 누비 의복	일	옥식(玉色) 화스듀(花紗袖)잔누비 저고리 분홍 화스듀(花紗袖)잔누비 저고리	일작		
두록 수화듀 의복	일	두록(豆綠) 왜듀(倭袖) 저고리	일		
송화식 덩듀(鼎袖) 의복	일	송화식(松花色) 수화듀(水禾袖) 누비 저고리	일		
두록 덩듀 의복	일	옥식(玉色) 문듀(紋袖) 존 주누비 저고리	일		
남 수화듀 징검잇[載陽甲] 의복	일				
하의	남 오호로문(五葫蘆紋) 금복존단(金福字緞) 위치마-슈천만세(壽千萬歲) 스란[膝襪] 구	하의	남(藍)화문사(花紋紗)웃치마[上裝]-구봉(九鳳)스란[膝襪] 구(具)	일	
	남 별문단 위치마-구봉(九鳳) 스란 구	일	남 주련문사 치마-던즈(篆字)스란 구		
	다홍 완즈당춘단(宛子長春緞) 겹치마-슈천만세 스란 구	일	다홍(多紅)도류문사(桃榴紋紗)치마-구봉 순란 구	일	
	다홍 절문초단(蝶紋毛納緞) 겹치마	일	다홍 공단(貢緞) 겹치마	일	
	다홍 수화듀 홀치마	일	다홍 무문갑사(無紋甲紗) 겹치마	일	
	남 수화듀 홀치마	일	남 설한단 겹치마 다홍(多紅) 모탑단(毛塔緞)치마 남 수화듀 홀치마	일	
속옷	빅더포(白苧布) 한삼(汗衫)	속옷	빅더포(白苧布) 적삼(赤衫)	이	
	빅 수화듀 존누비 너른붕디[廣袴]		빅화방듀(百花紡袖) 존 누비 너른바지[廣袴]	일작	
	빅 수화듀 존누비 붕디[袴]		빅화방듀 존 누비 붕디[袴]	일	
	빅 수화듀 오목[襖]누비 붕디				
	빅 덩듀(鼎袖) 누비 붕디		빅덩듀(白鼎袖) 핀 바디[袴]	일	
	빅 덩듀 핫붕디				
	빅 덩듀 누비 야붕디[夜袴]				
	빅 수화듀 존누비 디즈(帶子)		빅덩듀 누비 디즈(帶子)	일	
기타	빅 반듀(白斑袖) 누비 디즈(帶子)				
	다홍 흘 휘건(揮巾)				
	초록 장원두 야장의(夜長衣)				
	빅 수화듀 정 자근치마[小裳]				
	빅 면포(綿布) 무족치마[霓裳]	오	빅덩듀(白鼎袖) 존누비 디즈	일	
빅 더포(苧布) 무족치마[霓裳]	일죽	빅덩듀(白鼎袖) 누비 디즈	일		

비), 모비인 왕대비 조씨(익종비)와 할머니인 대왕대비 김씨(순조비)에게 조현례를 올렸다. 책빈일에 갖춘 명복과 동일하게 수식, 직금원삼, 패옥, 수정대, 청옥규, 후수를 갖추었으며 인사를 받는 왕대비와 대왕대비는 적의를 입었다.

세자빈의 조현례에 세자빈은 명복에 수식을 갖추고 인사를 올렸으며 인사를 받는 왕은 원유관 강사포, 왕비와 대비는 적의를 입었다. 세자빈의 명복은 친영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청색 적의를 갖추었겠으나 적의로 표기하지 않고 명복으로 표기하고 있다. 왕비의 조현례에 왕비는 대홍색 적의에 수식을 갖추고 인사를 올렸으며 인사를 받는 대비는 자적색 적의를 입었다.

경빈의 조현례 후 초일 문안에는 가라머리에 금수복자발을 갖추고 왕대비전에서 조반상을 들었다. 경빈의 가례를 위하여 대비가 보내온 의복에 금체(金體) 봉흉배 건화(肩花)를 갖춘 초록주련문사 직금당저고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당의에는 금 봉황보를 달아서 직금발의 매무새를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차림은 조선의 최고 명절인 왕의 탄일·설날에 경빈이 착용한 문안 복색이기도 하다.²¹⁾ 혜경궁 홍씨는 가례 후 “인원, 정성 두 성모께는 닛새 만에 한번 문안드리고 선희궁께는 사흘에 한번씩 문안드리기로 되어있으나 거의 날마다 모실 적이 많으니 그때는 궁중의 법이 엄하여 예복을 하지 않으면 감히 뵈옵지 못하였다”는 회고로 미루어 혜경궁은 평상시 문안에도 경빈이 명절 최고의 문안복색으로 착용한 금수복자발을 입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IV. 관례 복식

어린나이에 간택이 이루어지고 가례를 올리기 때문에 관례는 가례 후에 치렀다. 관례는 성인식에 해당하는 동시에 합방을 위한 준비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경빈은 가례 후 한달이 못되어 관례를 치렀지만 혜경궁처럼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례를 올린 경우에는 5년 후에 관례를 올리기도 하였다. 15세를 여성의 성년례에 적합한 나이로 여겼기 때문이다. 『성재집(成齋集)』에는 “여자는 음에 속하는데 열다섯은

양의 수이다. 열다섯에 계례를 하는 것은 양으로 음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고,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여자는 출가를 허락한 후 계례를 한다. 나이 15세가 되면 출가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계례를 한다”²²⁾고 하였다. 경빈은 초가에 수식을 갖추고, 원삼을 입었으며, 재가에는 광식에 원삼을 입었으며, 삼가에는 큰머리에 원삼을 갖추었다.

왕세자나 왕의 경우 초가에 공정책 또는 익선관에 용포, 재가에 원유관 강사포, 삼가에 평천관 면복을 입어서 관례의 절차가 진행될수록 의복이 중하여진다. 이에 반하여 경빈은 초가에 수식이라는 가장 큰 머리를 갖추었다. 수식은 관례 이전에 치룬 가례의 절차 중 책빈, 동뢰연, 조현례 등 명복을 입을 때 갖추던 최고의 예장으로 비·빈의 신분을 드러내는 머리가기 때문에 초가의 머리모양으로 채택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18세기 중엽 이전에는 수식이 대수와 거두미를 지칭하는 이중적 의미로 쓰였으나 그 이후로 대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되었고, 1922년에 사용된 영왕비의 유물에는 대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²³⁾

재가에는 부인의 머리모양인 광식을 한다. 『당미관례시광식하온발기』²⁴⁾와 『당미가례시일기』에 관례를 위하여 준비한 물목을 보면 광식은 조짐머리로 생각된다. 이은주도 이에 대하여 조짐머리로 추정한다. 바 있다.²⁵⁾ 조짐머리는 흔히 일컫는 쪽진 머리에 다래를 더하여 쪽을 크게 만들고 첩지를 더한 일상적인 머리가기 때문에 폭넓게 쓴다고 해서 광식이라고 칭했을 것으로 추론한다. 삼가에 하는 큰머리는 수식의 하나이던 거두미로서 대수에 버금가는 규모의 머리아다. 쪽머리에 어염족두리를 얹고 다래를 두른 어여머리 위에 큰머리 채발을 얹었다. 상궁은 목재가발을 얹지만 왕실여인은 채발을 땅아 만든 큰머리²⁶⁾를 얹었다.²⁷⁾ 큰머리 채발의 모양은 익선관과 같다²⁸⁾고 하였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둥근 나비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례의 절차에 따라 머리모양이 바뀌지만 의복은 원삼을 입고 자적 면사를 갖추었다. 초가, 재가, 삼가에 계속해서 원삼을 착용하지만 동일한 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원삼이라도 갖추는 부

속품에 따라 명복일 때는 패옥, 수정대, 청옥규, 후수를 갖추며, 예복에는 봉대를 띠기 때문이다. 관례복식으로 원삼, 봉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초가에 하는 수식은 명복과 짝을 이루는 머리모양이므로 이 때는 명복으로서의 원삼을 입었을 것이며 재가, 삼가에는 봉대를 갖추었으므로 예복으로서의 원삼을 착용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V. 절기 복식 및 진연(進宴)·치사(致仕) 의복

여염집 혼례에도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생 입을 의복을 준비했던 것처럼 경빈의 가례에도 다른 행사에 소용될 복식을 같이 마련하였다. 따라서 『당미가례시일기』를 통하여 절기 복식과 잔치에 입는 복식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절기복식에 대해서는 『상방정례』의 항례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왕실복식을 담당한 상의원에서는 절기에 따라 계절에 맞는 의복재료를 올리는데 봄의 기운이 가득한 삼짇날에는 흑웅피삼혜(黑熊皮鞞鞋), 흑웅피온혜(黑熊皮溫鞞), 백당피초혜(白唐皮草鞋) 등 신발류를 올리고 여름이 시작되는 문호인 단오에는 백저포를 의대의 소재로 올렸다. 『당미가례시일기』에는 삼짇, 즉 삼짇날에 입는 경빈의 상의로 초록 공단 홀당의 또는 초록 영초 홀당의, 송화색 저고리, 분홍 또는 보라색 속저고리를 준비하고, 하의로 풀떡인 다홍 화문 겹치마, 남감사 겹치마, 다홍 유문장원주 홀치마, 다홍 유문항라 홀치마, 남 유문항라 홀치마, 다홍 저포 치마, 백정주 누비바지, 그리고 그 외에 백서양목 누비 대자(帶子)를 마련하였다. 19세기는 저고리가 짧고 품이 작아져 가슴을 가리는 허리띠를 두르던 시기이므로 백서양목 누비 대자는 가슴에 두르던 허리띠로 추정된다.

단오는 여름의 시작인지라 경빈의 의복에서 계절의 변화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초록 화문사 당의, 송화색 소문능 잔누비 저고리, 분홍 문주 잔누비 저고리 일작, 초록 은조사 당의, 송화색 설한초 저고리 일작, 백은조사 당한삼, 백쌍문초 고도²⁹⁾ 일작, 백세저포 당한삼, 백세저포 상침³⁰⁾ 일작 외에 백저포 께

끼³¹⁾, 백저포 한삼 등의 상의를 준비하였다. 여름에는 개끼, 상침 등 얇은 옷에 적합한 바느질 기법을 활용하고 흰색 겹저고리인 고도, 흰 당의 등 흰색 상의를 많이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치마도 다양한 소재의 홀치마, 겹치마를 마련하였다. 잔누비 저고리도 준비하였으며 땀받이 의복인 한삼은 일죽 즉, 10벌을 준비하였다. 그밖에 분홍색 저항라 홀치마, 초록 정주쟁 겹천의(襦衣), 청 저포 홀천의(襦衣) 등에서도 단오의 계절 특성을 볼 수 있다.

궁중연회인 진연과 나이든 대신이 현직에서 물러나 봉조하의 관직을 받는 치사에 갖추는 예복에는 유청 화문사로 안을 받친 자적원삼에 가슴, 등, 양어깨에 봉홍배를 달았다. 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명복으로서의 원삼이 아닌 예복으로서의 원삼이므로 봉대를 했을 것이다. 원삼 안에는 초록 당의, 송화색 겹저고리, 분홍색 속저고리를 입었는데 단(緞), 항라, 광사 등 다양한 소재를 잔누비로 준비하였으며 예복에 갖추는 치마이므로 겹치마, 홀치마 외에 옷치마를 마련하였다.

VI. 여성예복의 특징

1. 원삼

원삼은 내외명부의 예복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유물도 많다. 부금한 수자 홍배를 단 초록원삼은 왕실처녀의 예복으로 착용하였으며, 왕실 여인은 가슴·등·어깨에 봉(鳳)홍배를 단 원삼을 입었다. 의례에 따라 명복으로 원삼을 착용할 때는 대대, 패옥, 청옥규, 봉후수를 갖추었고, 그 외에는 봉대를 띠고 패옥, 규, 후수를 제하였다. 경빈이 잔치에 참석할 때는 유청으로 안을 받친 자적 직금원삼에 가슴·등·어깨에 봉(鳳)홍배를 달아서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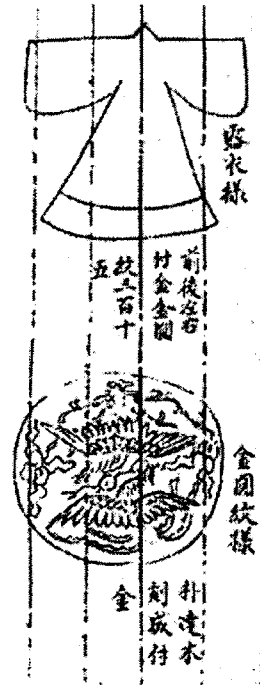
의례에 의하면 간택된 세자빈 어머니의 복식을 아칭필단으로 된 할의(割衣)로 기록하고 있지만 혜경궁 홍씨가 지은 『한중록』에는 모친이 원삼을 입고 큰머리를 엮었다고 하였다. 『정미가례일기』에는 경빈의 어머니 복식을 다홍공단으로 안을 받친 초록 향직 원삼으로 기록하고 있다. 할³²⁾의는 '큰옷'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두어 표기법이며 원삼은 大衣라고도 하였으므로³³⁾ 활의와 원삼은 동일한 의복에 대한 다른 표기일 수 있다고 본다. 큰 옷이란 어느 특정한 옷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신분에 따라 최고로 입을 수 있는 예복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삼을 입을 수 있는 신분에서는 원삼이 큰 옷이고 장삼을 예복으로 입을 수 있는 신분에서는 장삼이 큰 옷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빈의 어머니는 명목상의 활의를 대신하여 다홍으로 안을 받친 초록원삼에 봉대를 갖추었다. 가례에 참석하는 내빈 중 군부인, 궁녀, 각택 등 부인은 초록원삼에 봉대를 갖추고 새덕[짧은 서방덕]은 초록당의를 입었다. 부인은 옥색 저고리 또는 연두 저고리에 남치마를 기본 의상으로 입고, 새덕은 송화색저고리 또는 연두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었다. 연두저고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착용한 저고리였으며, 원삼에는 옷치마를 갖추어 두벌의 치마를 입었다.

원삼은 역대가례도감의궤에 왕세자빈과 왕세손빈의 의대로 기록하고 있고 상방정례에도 왕세자빈과 숙의의대에는 아청광사 원삼이 포함되지만 왕비 의대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군부인과 공주가례의 복식으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원삼을 혼례복으로 착용하였으며, 예복의 구조가 원삼과 당의로 단순화된 국말에는 왕실 여인이 원삼을 착용한 사례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2. 노의

노의는 조선초기에 왕비 및 정4품 이상의 정처가 입던 예복으로 고려시대에도 존귀한 자의 복식으로 인식되던 의복이다.³⁴⁾ 왕실에서는 국말에 이르기까지 왕비를 비롯하여 세자빈과 숙의 가례, 그리고 공주, 응주의 길례에 착용하였다. 용도는 부인이 길을 갈 때 입는 옷³⁵⁾ 즉 외출복이었는데, 역대가례도감의궤에는 노의의 용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유일하게 현종과 후궁 경빈 김씨의 가례를 기록한 『정미가례일기』에 경빈 김씨가 별궁을 나와 입궐할 때의 복식으로 노의를 기록하고 있다. 별궁을 나와 입궐할 때라면 가례의 여러 절차 중 집박, 즉 외출복의 용도로 노의를 착용했다는 것이어서 조선 초기 실록에 나타난 노의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 露衣樣(출처: 인조장열후가례도감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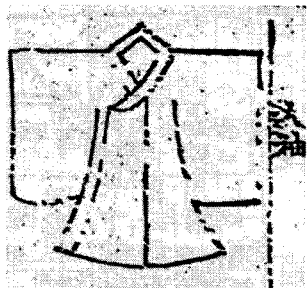
『상방정례』에 나타난 세자빈 노의는 걸감을 대홍 필단, 안감을 남숙초로 하고 남태수를 달았으며, 남색의 대를 띠었다.³⁶⁾ 『정미가례일기』에는 노의 봉대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경빈의 노의에 띠 대의 문양은 봉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방정례』에는 걸감과 안감에 모두 대홍색을 쓴 왕비 노의를 흥배금 원문 노의라고 하여서 흥배를 강조하고 있으나 세자빈의 것에는 흥배에 관한 언급이 없다. 공주의 노의는 걸이 대홍, 안은 자적이다. 『인조장열후 가례도감의궤』에 제시된 노의의 외형은 적의와 마찬가지로 앞이 짧고 뒤가 긴 특징을 가졌다. 전단후장(前短後長)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고려말의아미타불복장유물³⁷⁾에서 보듯이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전통적인 의복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조장열후 가례도감의궤』에는 노의에 금원문 315개를 부금한다고 하였으며, 날개를 펼친 1쌍의 새가 위 아래로 마주 놓인 금원문을 제시하고 있다. 노의로 추정되는 청연군주묘 출토물에는 원앙 1쌍이 마

주보는 금원문 215개가 부금 되어있으며 동시대의 원삼과 동일한 외형적 특징을 지녔다. 원삼과 같은 대금형의 배자 깃, 넓은 소매에 색동과 한삼을 달았고, 당의와 같은 곡선을 이루는 양 옆은 트였으며 몸판 전체에 금원문 215개가 찍혀있다.³⁸⁾

홍장삼으로 추정되는 여러 유물에는 『인조장열후 가례도감의궤』에 묘사된 문양처럼 날개를 펼친 1쌍의 새문양이 상하로 놓인 것, 청연군주묘 출토물의 금원문처럼 원앙문이 좌우로 놓인 것이 있다. 유추하건데 날개를 펼친 1쌍의 새문양이 새겨진 금박판을 찍는 방향에 따라서 새가 위, 아래로 놓이기도 하고, 좌우로 놓이기도 한 것이며, 원앙문은 혼인의 길상문으로 채용되어 점차 원앙문 한가지로 정리된 것으로 본다.

3. 장삼

장삼은 왕실 여인으로부터 상궁, 내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착용하던 여자 예복이다. 장삼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같은 옷이 아니라 착용자와 소재에 따라 구별이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왕비, 대비, 숙빈의 상복(喪服)인 <그림 5>의 대수를 본국 장삼³⁹⁾이라고 하고, 궁주, 응주, 각전시녀의 상복인 배자(背子)는 본국 몽두의(蒙頭衣)⁴⁰⁾라고 하여서 장삼과 몽두의를 구별하는 한편 장삼과 몽두의가 중국에서 전래한 것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4품 이상의 정처(正妻)는 노의·오·군·입·모를 착용하고, 5품 이하의 정처는 다만 장삼(長衫)·오·군·입·모를 착용하되 노의를 입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궁녀(宮女)와 상기(上妓) 이외에



<그림 5> 『國朝續五禮儀序例』券1
凶禮 喪服圖說 大袖

서인(庶人)의 부녀(婦女)와 종비(從婢)·천례(賤隸)의 옷은 다만 면주와 저포의 몽두의(蒙頭衣)를 쓰고”⁴¹⁾라고 하였다. 『정미가례일기』에는 기행내인의 복식을 몽두리로 기록하고 있으나 역대가례도감의궤에는 기행내인의 복식을 장삼으로 기록하여서 동일한 의복에 대한 異名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배자, 장삼, 몽두리는 동일한 계열의 의복으로서 신분 에 따라 소재로 구별하고 명칭에 차이를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혼례에 모(姆)가 현색의 배자(背子) 장의(長衣)로 성복(盛服)한다⁴²⁾고 하였고, 『상방정례』에는 가례에 참여하는 상궁·시녀·유모의 복식으로 아청색 할의를 기록⁴³⁾하고 있으며, 역대가례도감의궤에는 아청색 장삼 또는 흑장삼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병와집(瓶窩集)』에 의하면 실녀[미혼녀]배자는 신부가 착용하는 홍장삼과 유사한 것이고, 증첩[기혼녀]의 배자는 관기가 착용하는 몽두리 같은 것으로 소매가 짧고, 직령을 달고, 底襟(저금)이 없는 것이다.⁴⁴⁾ 즉 몽두리는 안자락이 없는 대금의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몽두리에서 이러한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홍배검장삼은 가례에서 비빈의 적의, 노의에 버금가는 예복이다. 『정미가례일기』에 의하면 경빈이 동뢰연의 복식으로 직금 홍장삼을 입고 수식을 하였으며, 패옥, 수정대, 청옥규를 갖추었다. 역대가례도감의궤에는 동뢰연에 명복을 갖추었다고 하였으니 경빈은 홍장삼을 명복으로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홍장삼은 신부 혼례복으로 착용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우리에게 활옷이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하다. 덕은공주 활옷의 수본에 써 있는 ‘홍장삼 수초 저등궁 덕은공주 활옷’이라는 글은 홍장삼이 바로 활옷임을 알려준다. 수놓인 홍장삼을 착용하게 된 시기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고유의 복식전통을 계승한 장삼은 조선 시대의 중요한 여성예복이었으나 모든 예복이 원삼과 당의로 수렴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4. 당의

당의는 원삼, 장삼과 더불어 명부예복의 한가지이며 장삼 또는 원삼을 대신하여 착용하기도 하였다.

유물은 많으나 당의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드물어서 역대가례도감의궤에도 당의는 기록된 바가 없다. 궁중발기에는 당고의, 당의복, 당저고리 등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왕비와 세자빈의 의대발기에는 당고의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일부 당의복, 당의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군부인, 옹주 등의 의복발기에는 당저고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 당고의, 당의복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⁴⁵⁾ 『정미가례일기』에는 경빈의 의복은 당의복, 내빈의 의복은 당저고리, 시배내인의 의복은 당의로 기록하고 있다. 신분에 따라서 명칭에 차이를 둔 것을 알 수 있다. 당고의는 왕비와 세자빈 의대에 해당하는 존칭이고, 당의복, 당저고리, 당의의 순으로 명칭의 격이 달라진다.

“명부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의 복식은 평시에 있어서는 마땅히 장삼(長衫)을 입고 머리를 수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일이 촉박하여 형편상 구비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임인년 가례 때에 행하던 예에 따라 양이엄에 당의를 입고 입시하도록 하라”⁴⁶⁾는 기록에서 보듯이 당의를 간편한 예복으로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가례에 참석하는 내빈 중 부인은 원삼을 입고, 새댁은 당저고리를 입도록 한 것도 원삼보다 가벼운 예복으로서 당의의 착용사례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정당집(閒靜堂集)』에 “장배자(長背子)는 장수(長袖)이고, 양거(兩袂: 소매, 옷자락을 추어 올리는 모양)가 서로 덮이고 양겨드랑이를 껴메지 않은 것으로 남자의 장유(長襦)와 비슷하나 조금 짧으면 단배자(短背子)가 되니 지금의 당의이다”라고 하여서 당의의 형태적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5. 옷치마

의례에는 치마 두벌을 갖추어 입을 경우, ‘장치마’와 ‘치마’로 기록하고 있는데 『정미가례시일기』에 장치마는 ‘옷치마’, 나중에 입는 치마는 ‘치마’로 기록하고 있다. 『임오가례일기』에는 봉서비자(封書婢子)의 복식으로 당저고리(唐赤古里), 상상(上裳), 단상(短裳)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상 즉 옷치마는 단상에 비하여 길이가 긴 것을 알 수 있다. 상공의 증인에 의하면 옷치마는 속치마처럼 먼저 입는 치마이며 남

색⁴⁷⁾이라고 하였는데 『정미가례시일기』에도 경빈이 갖추는 모든 스란치마 중 남치마를 옷치마로 기록하고 있다. 대례복에 갖추는 전행옷치마는 의(衣)보다 먼저 입는 치마라는 개념이 강한 명칭이지만 여성의 차림새로 보면 치마 중 가장 겉에 놓이는 치마이기 때문에 복식학계에서는 마지막에 입는 치마를 옷치마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행옷치마는 남자의 조복(朝服)·제복(祭服)에 갖추는 전삼후사폭(前三後四幅)에 주름을 잡은 남자의 상(裳)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는 대례복의 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므로 기본의상으로 갖추는 치마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하는 옷이라고 본다. 생존해있는 의친왕의 5녀인 이해경 옹주와의 인터뷰⁴⁸⁾를 통해서도 옷치마는 속에 입는 치마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Ⅶ. 결론

치너는 간편한 예복으로 다홍치마에 보라색 또는 분홍색 속저고리를 입고, 송화색 저고리와 초록색 견마기를 입으며, 생머리[絲陽髻(사양계)]에 도투락댕기를 늘였다. 중한 의례에는 초록색 당의를 입는다. 젊은 부인은 남치마에 보라색 속저고리와 송화색 또는 연두색 저고리를 입고 중한 의례에는 초록색 당의를 입었다. 부인은 남치마에 보라색 속저고리를 입고, 옥색 또는 연두색 저고리를 입으며 중한 의례에는 초록색 당의와 초록색 원삼을 입고 봉대를 하였다.

비빈으로 간택된 치자는 공주 옹주의 예복과 같이 부금(付金)한 수자(壽字)홍배를 단 초록 금수복자(金壽福字) 원삼에 봉대를 하여 예복으로 삼았다. 원삼 받침옷으로 남색부금전자(篆字)스란 옷치마와 다홍 부금전자스란 겹치마를 입고, 상의로 속저고리, 저고리, 금수복자 당의를 입으며 가라머리를 하였다. 봉황보를 단 초록 직금당의에 남스란 옷치마, 다홍스란치마를 갖춘 차림은 직금밭이라고 하여서 설날·탄일 등 최고 명절에 왕실여인이 입는 문안복색으로 삼았다.

경빈의 명복(命服)은 직금한 초록원삼에 수정대, 패옥, 청옥규로 구성되는 부속품을 갖추고 머리에는 수식(首飾)을 하였다. 원삼에는 가슴·등·어깨에 봉

(鳳)흉배를 달고, 봉(鳳)후수를 하였다. 수정대는 세손빈의 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빈이라는 동일한 호칭을 갖더라도 경빈의 서열이 세자빈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왕비는 대홍색 적의, 세자빈은 아청색 적의를 법복으로 삼았다. 명복은 가례의 절차 중 책빈일, 동뢰연, 조현례에 입었는데 동뢰연에는 원삼이 아닌 홍장삼을 입고 다른 부속품은 동일하게 갖추었다. 동일한 원삼이지만 명복이 아닌 예복으로 착용할 때는 모든 부속품을 제하고 봉대를 띠었다. 진연이나 치사의 예복으로 경빈은 가슴, 등, 양어깨에 봉흉배를 단 자적원삼을 입었다. 그 밖에 노의를 외출복의 용도로 착용하였다. 장삼은 신분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고 명칭에 차이를 두어서 장삼, 몽두리 등으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했다.

참고문헌

- 1) *당미가례시일곡*. *憲宗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에 의례전반을 기록한 앞부분에는 11월 17일로, 각 의례의 실행에 따른 물목을 기록한 부분에는 11월 26일로 기재되어 있다. 실행물목을 담고 있는 *경미폐물가례일곡*에는 11월 26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경빈가례등록에는 11월 29일로 기록되어 관례일이 제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 2) *慶嬪嘉禮勝錄*. 丁未 七月 十八日
- 3) *당미가례시일곡*
- 4) *당미가례시일곡* 기간택 처녀 의차: 기간택에 참여한 처자의 수를 초간택 처자 32, 재간택 처자 5, 삼간택 처자 3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재간택에 임하는 처녀의 차를 4차로 기록하고 있음은 의문이다.
- 5) *五洲衍文長箋散稿*. 卷15 東國婦女首飾辨證說
-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古文書集成* 十二. pp. 24-25.
- 7) *당미가례시일곡* 삼간택 맥으로 보내는 의복
- 8) *한중록*
-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古文書集成* 十二. pp. 24-25.
- 10) *憲宗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에 草綠緞付金繡字胸背로 기록되어 있으나 壽字의 오기로 보인다. 繡字흉배 관련 유물을 찾을 수 없고 繡字를 도안으로 쓴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길상문자로 애용하는 壽字 흉배는 본이 남아 있다. 흉배의 문양을 금박으로 나타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1) *당미가례시일곡*. 삼간택(三揀擇) 의복(衣服): 삼간택 의복이란 최종적으로 간택된 예비 빈궁이 입는 의복이다.
- 12) 정조실록. 26卷 12年 10月 3日 (辛卯)
- 13) 남영신 역 (1987). *우리말 분류 사전*. 한강문화사, p.

- 97.
- 14) *세종실록*(*世宗實錄*). 12년(1430, 경술) 12월 22일 무자.
- 15) 유형원 (1622-1673). *磻溪隱錄*.
- 16) *國朝五禮儀*. 卷之三 嘉禮 納妃儀
- 17) *당미가례시일곡*
- 18) 머리장식과 신발, 이엄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19) 김용숙 (1987).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p. 289.
- 20) *憲宗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禮服節目
- 21) *順和宮帖草*
- 22) 『*四禮便覽*』 卷之一 冠 二十
- 23) 김지연 (2008). *조선시대 여성 예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65-68.
-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古文書集成*. 十二. p. 245.
- 25) 이은주 (2008). 19세기 조선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 *복식*, 58(3), p. 26.
- 26) 큰머리는 구성요소인 동시에 완성된 머리모양을 일컫는다.
- 27) 김지연 (2008). *조선시대 여성 예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7.
- 28) *고종실록*. 10卷 10年(1873) 8月 29日 (乙巳)
- 29) *흰 겹저고리의 궁중말: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4. p. 163.
- 30) 상침이란 바이 옷 따위의 가장자리를 겹에서 눌러박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적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 31) 이 옷은 당의로 추정된다. 각기 바느질은 당의에만 쓰였기 때문이다. 권혜진 (2001). *당의(唐衣)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1.
- 32) 접두어 '한'은 명사 앞에 붙어서 '큰'의 뜻을 나타내며, 할(割)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말 어원사전에 의하면 '할'의 어원은 '할아버지'의 어근인 '하[大]와 같이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김민수 편 (1977). *우리말 어원사전*. 서울: 태학사, p. 1145.
- 33) *四禮便覽*. 卷3 喪
- 34) *고려사* 志. 卷39
- 35) *世祖實錄*. 20卷 6年 4月 9日 (乙卯)
- 36) *尙方定例*. 卷人 嬪宮法服 衣襟
- 37) *온양민속박물관학예연구실편* (1991). *아미타불부장유물의 조사연구*. 온양민속박물관, pp. 88-95.
- 38) 이성희 (2003). *조선후기 노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1.
- 39) *太宗實錄*. 15卷 8年 5月 25日(癸酉)
- 40) *世宗實錄*. 111卷 28年 3月 27日 (甲午)
- 41) *太宗實錄*. 23卷 12年 6月 14日(丁卯)
- 42) *四禮便覽*. 卷2 昏
- 43) *尙方定例*. 卷人
- 44) *瓶窩集*. 卷5 答尹進士孝彥
- 45) 황주선 (1999).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0.
- 46) *光海君日記*. 29卷 2年 5月 7日(辛亥)
- 47) 김용숙 (1987). *조선조궁중풍속연구*, p. 287.
- 48) 2007년 8월13일 경운박물관.